

4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일단 화답

〈정의당 윤소하 요구〉

이인영 “조속히 문 열어야” 나경원 “모든 준비 돼”

오신환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자”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연임 인사차 방문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요구에 모두 긍정적으로 화답해 국회 정상화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방문해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국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이 ‘국회가 이제 제대로 서는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정의당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는 데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가졌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준2를 어떻게 개막할까 고심하고 있다”며 “6월 국회 소집은 5월 국회와 다르게 법을 지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재연 행사를 할 때 뵈고 국회에서는 처음이다. 내일부터 계속 국회에서 보였으면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충분히 국회 정상화 의지를 가진 분으로 안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데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며 “같이 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

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돼 있다. 기다리고도 있다”며 “다만 정리될 부분은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찾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같이 하셨다. 결국 ‘키맨’은 오 원내대표다.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잘 잡아달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함께 호흡 맞추자”며 “여야 모두의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김진수기자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하라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쪽 나뉜 바른미래, 이번엔 ‘징계’ 놓고 다시 격돌 조짐

당 윤리위, 내일 심의 안전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도 포함

오는 31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안전 심의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 안전으로 바른정당계 수장 격인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촉구하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포함됐고, 역시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대상 안전이다.

당 윤리위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는 당 지도부를 ‘문재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2중대’에 빗대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이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썬살 정치’라고 비판하며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한 사실을 바른정당계가 문제 삼았다.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 정지, 경고 등이다.

직무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최고위원직 유지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바른정당계는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손 대표 사퇴와 ‘혁신위’ 수용을 압박하자 손 대표 측이 당무 운영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윤리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난달 이언주 의원은 손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발언에 대해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하자 탈당했다.

여기에 송태호 윤리위원장 역시 손 대표의 대선준비 모임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소속이었으며, 손 대표가 임명한 최

도자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지난달 이후 위원 구성이 그대려서 편파적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바른정당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가 당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례나, 그가 음주 상태로 지역 행사 등에 참여했다는 제보 등을 모아 손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식의 ‘맞불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저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려 했다면 임명 절차 때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징계절차를 다루는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의를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서삼석, 양파·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



추가생산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양파 2만4천톤, 마늘 1만1천톤에 불과해 실효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기대책으로 수매비축,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및 대북지원, 장기대책으로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최경환, ‘김대중 캠프’서 DJ 리더십 강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목포 및 신안군 하의도에서 열리는 ‘김대중(DJ) 대통령 서거 10주기 2019 김대중평화캠프’에서 ‘김대중 리더십’ 강연에 나선다.

김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김대중평화캠프 조직위원장을



맡아 매년 ‘김대중평화캠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캠프 참가자 500여명과 하의도 주민을 포함해 약 2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전경선, ‘道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직적인 ‘갑을’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그동안 계약관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갑’과 ‘을’이란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남도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남도 산하기관 및 도 출자



출연기관의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그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또, 도지사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은

“갑을 관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약·협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임태만기자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신선일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정기인사를 통해 조병남 광주시당 사무처장을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장으로 발탁하고, 중앙당 민원법률국 신선일(자진) 국장을 신임 광주시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나주 출생으로 조 선대 법학과, 서울사회복지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경주를 지구당 사무국장으로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과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으로 발령받은 조 전 사무처장은 고령 출신으로 2016년 4·13총선의 여파로 시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처장에 발탁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지난 3년간 ‘춧불집회’,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치르며, 호남 민심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다이지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월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기 공 사

[교육내용]
- 동력제어반공사, 동력설비공사
- 배관공사, 전열공사, 조명공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취득 자격증]
- 전기기능사, 송강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태양광발전설비

[교육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 안전관리
- 발전장치 전기시설 및 토목공사
- 태양광발전연계장치, 전기CAD

[취득 자격증]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냉 동 공 조

[교육내용]
-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계
- 자동제어설비, 냉동설치시공
- 가스용접,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취득 자격증]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 에너지기능사 (6/3 개강)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 어려운 필기, 실기 시험 없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
- 직업상담사 실무능력까지 훈련가능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기간 전무상당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자동차(전기전자)정비

[교육내용]
- 엔진점화장치정비유지보수
- 하이브리드전기장치정비
- LPG/LPI전자제어장치정비

[취득자격증] (6/3 개강)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